

고규홍의 '나무 생각'



귀로 향기를 들어야 하는 꽃

한 해의 가장 추운 때라는 대한(大寒)을 며칠 앞둔 숲에 매화꽃이 피었다. 옷감을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꽃망울엔 이미 봄의 기미가 가득 들었다.

무성한 가지 위에 고작 몇 송이뿐이지만, 새해 들어 처음 만나는 꽃이어서 더없이 반가웠다. 예부터 '설중매(雪中梅)'라 하여 매화는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으니, 매화로서는 이른 것도 아니다. 언제나 이 땅의 봄을 가장 먼저 불러오는 건 매화다. 이런 까닭에 매화꽃 개화를 기다리는 마음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펼치려는 생명의 본능에 가깝지 않나 싶다.

매화나무라 했지만, 우리 식물도감에 매화나무라는 나무는 없다. 식물 이름을 짓는 방식이 대개는 열매 이름을 중심으로 붙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밤이 열리는 나무는 밤나무, 감이 열리는 나무는 감나무로 부르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매화 꽃진 자리에 맺히는 열매가 매실이기 때문에 식물학에서 부르는 이름은 '매실나무'다. 하지만 우리의 옛 선비들이 나무를 좋아했던 이유는 열매 때문이 아니

오 은은한 향을 홀로 아득히 풍기는 꽃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매화나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매화나무는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기원전부터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선비들에게 사랑받은 나무다. 그러니 우리 나무라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옛 선비들은 매화를 유난스레 좋아했다. 옛 시문(詩文)과 서화(書畵)에 매화만큼 자주 등장하는 꽃도 없다.

옛사람들이 매화를 고르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 짧은 것보다 높은 것을, 살진 것보다 마른 것을, 번거로운 것보다 희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풍성하게 피어나는 여느 꽃을 즐긴 것과 달리 매화만큼은 홀로 선 높은 나무에서 한두 송이씩 성글게 피어나는 걸 즐겼다. 이는 이야기다. 이유가 있다. 세상의 풍진을 벗어나 은둔하는 선비의 이미지를 매화에서 찾은 것이다.

매화를 즐기는 법도 따로 있었다. '문향(聞香)'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향기를 듣는다'라는 뜻이다. 코로 맡는 게 당연한 향기를 귀로 들어야 한다고 표

현했다. 문향이라 할 때의 '문(聞)'은 처음에는 듣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지만, 나중에 '이치를 깨우친다' '알린다' 등의 뜻이 더해졌고, '냄새를 맡는다'는 뜻까지 포함됐다. 그럼에도 소리를 듣는 기관인 귀를 뜻하는 '이(耳)'가 들어 있는 글자여서 아무래도 '듣는다'는 뜻이 가장 앞자리에 선다.

매화가 아닌 다른 꽃의 향기를 맡는다는 표현으로 '문향'을 쓴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매화 향을 표현할 때만큼 자연스럽지는 않다. 매화꽃 감상법을 유독 문향이라 한 것은 매화를 사랑한 이유에 닿아 있다. 매화는 번거로운 시정(市井)이 아니라, 고요한 은사의 정원이란가 산사의 트라에서 홀로 아득히 풍겨오는 향기를 감상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생각이었으리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매화 애호가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가난한 화가 김홍도가 있었다. 그는 그림을 판 돈 삼천냥 가운데 이천냥으로 매화 한 그루를 사고, 팔백냥으로는 동무들을 불러 매화꽃 아래서 술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매화음(梅花飮)이라는 고사의 연유다. 홀로 은근히 즐기보다는 벗들과 함께 즐겨야 한다는, 문향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감상법이다.

나무마다 가까이 다가서는 법이 제각각 다른 건 사실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렇듯 나무에도 저마다의 특징이 따로 있기에 그 특징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다가서는 법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생명을 만나는 데에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생명이 다가서려는 지극한 관심과 성의다.

곧 이 땅에 봄이 다가올 것이고 매화는 온 땅에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향기를 가득 채울 것이다.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을 더 찬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우리 곁의 생명이 매운바람 맞으며 애면글면 살아가는 겨울이다. 그러나 이제 곧 봄이 온다. 모든 생명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계절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기관지염, 폐렴 그리고 천식



조형민 광주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장

감기, 기관지염, 폐렴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개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렸다는 생각을 한다. 감기는 다른 말로는 '상기도염'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도 상부 즉 코, 목, 기도에 바이러스가 침입해 기침, 콧물, 열 등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한다. 감기의 경우 폐는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 소리는 정상이다. 호흡 소리가 비정상이라면 감기가 아닌 기관지염이나 폐렴일 가능성이 있다.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그만큼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된다. 이런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병원을 찾아 온다. 상담과 진찰 중에 아이가 천식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은

당황해 하기 마련이다.

천식은 알레르기 반응, 바이러스 감염, 운동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관지 내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만성적인 기관지 내 염증을 인체 기관지가 민감해져서 쉽게 좁아진다. 좁아진 기관지 때문에 호흡 곤란, 기침, 쌉쌉거리는 호흡 등이 발생한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기관지가 확장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천식이 걸리는 환자들의 40% 정도는 생후 한 살 이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미취학 아동의 15%가 천식을 가지고 있다. 초·중·고교생이 되면 기관지 크기가 커져 천식이 감소한다. 이 시기에는 5% 미만의 아이들이 천식을 가진다.

천식을 가진 아이들의 80%는 감기에 걸리면 천식이 악화된다. 감기에 걸리면 호흡 곤란, 기침, 쌉쌉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때때로 아날지라도 빈번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천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세 번 이상의 쌉쌉거리는 기관지염을 앓으면서 천식의 가족력이 있거나 환아 자신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

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있고, 알레르기 검사에 이상이 있을 때도 천식일 가능성이 있다. 여섯 살 이전에는 천식을 진단하는데 꼭 필요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병력을 고려해 천식을 진단하게 된다.

천식이 있는 아이들 중 80%는 운동 중에 천식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아이가 달리고 나서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숨이 특별히 많이 가쁘다고 한다면 천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저녁에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많다.

천식을 진단할 때는 병력 청취가 아주 중요하다. 앞서 설명했던 반복되는 쌉쌉거림이 있을 때, 운동 중 호흡 곤란이나 기침이 동반되는 경우, 야간 호흡 곤란 등이 있다면 천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가족 중에 천식 환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환아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만 6세(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소아는 폐기능 검사 및 천식 유발 검사를 실시해 천식을 진단할 수 있다. 천식 유발 검사란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약물을 흡입 후 기관지 수축이 발생하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다. 잘못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에서는 천식 유발 검사가 필요하다.

천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호흡 곤란, 쌉쌉거림,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급성 악화시 치료와 이런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치료로 나눈다.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주로 기관지를 넓혀 주는 약물(기관지 확장제)을 흡입하거나 먹게 된다. 예방 치료는 기관지 내의 염증을 없애 주는 약물을 사용한다. 증상이 심해졌을 때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이다. 예방 치료는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약물을 사용하는데 주로 폐로 흡입하는 기구를 사용해 투여하거나 먹는 약을 복용하게 된다.

많은 보호자들이 천식이 좋아지는 병인가를 묻는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천식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지는 병이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 후 적절한 치료와 예방적 치료를 계속해야 천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社說

한전공대 지자체에 재정 부담 떠넘겨서야

한전공대 후보지 선정이 임박해 오면서 지방 자치 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 신청한 곳은 광주·전남 각자 세 곳씩으로 한전 입지 선정 전문가 위원회는 이중 광주·전남 한 곳씩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할 후 최종 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지가 발표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지 선정 배정 평가 기준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 평가 기준을 보면 경제성과 지자체 지원 계획을 평가하는 2단계 심사 총점 35점 가운데 부지 제공 조건(13점)과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 계획이 각각 7점과 8점씩 모두 15점이나 된다.

전체 35점 가운데 지자체의 역량이 28점이나 되다 보니 지자체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악한 재정을 무릅쓰고 출

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정을 위해 무리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자체가 운영비를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가.

이 시점에서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전 입장에서 인제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게 설립 취지 아니던가. 그런 만큼 한전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POSTECH)을 보더라도 국가나 기업(포스코)이 부지 매입은 물론 설립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꾸준하게 투자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시켰다.

따라서 한전은 자금부타라도 부지 선정부터 대학 설립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한전공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만든다는 주인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빛가람혁신도시의 상생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체육관도 없는 학교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광주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3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거나 장마·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체육 수업은 물론 야외 활동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315개 학교 중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9개 등 모두 39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다. 이들 학교는 낡은 날씨엔 인근 학교 체육관을 빌려 쓰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산수초가 충장중 체육관을 사용하는 등 인근 중·고교 체육관에 기대고 있다.

중·고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학교가 체육관 한 개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송원학원 산하 5개 학교와 유은학원 산하 4개 학교, 죽호학원 산하 4개 학교는 각각 하나의 체육관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공립인 용산초와 북초는 인근에 다른 학교

가 없어 비가 내리거나 미세먼지가 덮치는 날이면 실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광주시교육청과 사립 학교 법인의 단일한 대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교단의 진단이다. 체육관 건립에는 한 곳당 20~30억 원이 드는데 사립 학교 측은 재정이 열악해 전체 사업비의 20%인 법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또한 예산 문제와 사립학교 측의 건립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학생들은 날씨와 관계없이 정규 체육 수업을 받고 활발한 야외 활동으로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 최근 경기도가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 시군의회와 힘을 합쳐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에 실내 체육관을 지어 주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립학교 법인은 물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체육관 조기 건립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그를 만난 것은 10년 전쯤이다. 이곳 출신은 아니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광주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다시 그를 만난 것은 최근 일이다. 광주라는 도시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아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도시 마케팅과 도시 브랜드 관련 전문가다.

도시 광주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흔히들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광주 정신'을 문화로, 도시 계획으로, 도시 재생으로

개발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한다. 외지인들 역시 그 도시의 개성과 매력 및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개발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오로지 아파트만 건설되고 있는 도시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아파트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비싼 분양가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여전하다. 일부는 아파트를 사재

도시 광주

담아내야 하는데 지금 기한 뒤 프리미엄을 얹어 실수요자들에게 넘겨버린 셈이다. 도시 공간, 전남 70여 곳에 이르는 5·18 유적지 등 도시 마케팅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도시의 공공(公共) 즉 공적인 기준에 근거, 시민 다수의 정서를 반영해 조성돼야 한다. 토지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개발은 행정 기관 인허가나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나 건설 업체가 사익만을 추구해서는 시민 전체의 이익, 더 나아가 그 도시에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밖에 없다.

개발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한다. 외지인들 역시 그 도시의 개성과 매력 및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개발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오로지 아파트만 건설되고 있는 도시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아파트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비싼 분양가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여전하다. 일부는 아파트를 사재기한 뒤 프리미엄을 얹어 실수요자들에게 넘겨버린 셈이다. 도시 공간을 사익 창출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공동체는 사라지고, 역사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있다. 건설 업체나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야 쉽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원하겠지만 이는 미분별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시 전체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상업, 편의, 문화 관련 건축물들도 여기저기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에서도 멋지고, 누구나 드나들며 즐길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보여 주고 싶은 건축물을 보고 싶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고

한전공대 부지, 성장 가능성·수요자 우선해야



이원표 미국 실리콘밸리 한미상공회의소 회장

세상은 늘 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정립되기도 전에 벌써 5차 산업 혁명이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바 지식의 빅뱅 시대에 작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매일 같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정보 공유, 협업, 개방, 플랫폼은 생존 전략의 고유 명사가 되었다.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지인 실리콘 벨리는 더욱 그러하다. 우수한 연구 개발(R&D) 인프라와 환경, 우수 인력의 끊임없는 공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글로벌

별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광주·전남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전공대일 것이다. 언론을 통해 구체화되어가는 한전공대 소식을 들으면서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치열한 당위성 논쟁이 접미가경이다.

필자가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한전공대 유치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우선이나, 한전공대의 성공 정착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한전공대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호남 거점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단기간에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다면 해답은 간단히 정리된다.

그렇다. 세계가 주목하는 에너지 신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한전공대는 지역 개발 논리가 아닌, 연구 중심 대학의 성공에 유리한 정주 환경과 대학에서 생활할 교수, 학생 등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지

속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 벨리처럼 말이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발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적화된 R&D 자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교육 기반 조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대학에서 생활할 수요자를 위해서는 연구에서 문화 생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캠퍼스 타운 조성에 유리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가 소지역적 개발 논리에 급급해 지역 자원과 교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발판이나 산기슭에 위치해서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산인 인재 양성에서 그만큼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한전공대가 연구 중심의 세계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거·문화 시설이 완비된 대도시 인근이면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유리한 R&D 및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환경에 적을 뒤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다른 기능의 연구 중심 대학이 인접해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리콘 벨리는 주

변에 35개 대학이 위치해 젊은이들의 창업 천국으로 불리면서, 스탠포드대와 UC버클리 간의 테크놀로지 경쟁을 통해 끝없는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다.

우리로 얼마든지 에너지가 샘솟는 장소가 있다.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연구 개발 특구의 풍부하고 훌륭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한전공대 유치 부지 선정의 해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용이한 입지 여건이 한전공대의 성패를 좌우함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지역 개발 논리는 광주·전남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 부지 확정을 앞둔 지금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의 존엄적 가치를 우선으로 한 거시적 안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한전공대, 최적지에서의 성공 정착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이상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국통 신청 배탈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	220-0515 문화사업
편집부	220-0649	문화	220-0661 (FAX 222-800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	220-0652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	220-0692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	220-0693 (FAX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